

영화가 미술에 접근하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되거나

July, 2016 | 윤규홍 예술사회학

대구

영화가 미술에 접근하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되거나

<홀 시네마 전> 열려



위 <홀 시네마> 전시광경

아래 정연두 <B-camera Playtime>

두 개의 패널에 작품, 폼보드 위

사진, 245×280×510cm 2015

대구미술관 프로젝트 룸에서 진행 중인 <홀 시네마 전>(6.11~10.16)은 미술가가 생각하는 영화에 관한 실천적 명제를 모은 전시다. 이 전시는 “원만한 영화보다 재미있다” 이번 전시가 저예산 영화 제작비보다 적은 예산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, 이런 언급은 미술의 굴욕일 수도, 혹은 긍지일 수도 있다.

‘한불수교 130주년 기념’이라는 문구에서 왜 100년 단위가 아닌 130년인가에 대해 의문은 든다. 하지만 프랑스에서 영화란 장르가 등장한 지 대략 130년 됐다는 사실은 대구미술관과 프랑스의 예술가인인 메종 데 자르 드 크레티엘의 협업으로 선보인 이번 전시명이 왜 <홀 시네마>인지를 짐작하게 한다.

전시는 영화 발명 이전과 초기에 고안된 카메라 옵스큐라, 회전요지경 등과 루미에르 형제가 완성한 시네마토그래프를 연상시키는 오브제 및 미디어아트가 켜. 진기중, 유화수, 정연두 작가에 의해 구현되어 있다. 이들 작업은 미셀 공드리 감독의 영화 <수면의 과학>(2005/프랑스)처럼 오래된 아날로그 취향을 재현한 놀이에 가깝다. 또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감상자의 감각과 인식에 새로운 경험을 부여하는 작품도 있는데, 그 수가 훨씬 많다. 에티엔 레이, 유비호, 짐 캄벨, 로렌 모페트, 오용석, 델핀 두랑&앙투안 슈미트, 니콜라 베르니에의 작업이 이에 해당된다. 영화를 보는 시간과 장소, 영화라는 텍스트, 영화를 보는 행위. 이는 마리야노 페스티, 니콜라 매그레트, 에밀리 브루트&막심 마리옹, 티에르 푸니에의 작업에 걸쳐 있는 3개의 맥락을 꼽은 것이다. 마리야노 페스티의 <에덴동산>(2014)을 제외한 나머지 미디어아트 작품은 관객이 직접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‘이제 영화란 무엇인가’라는 장 쉐프 고다르적인 질문에서 한발 나아가 ‘그렇다면 이제 영화와 영화가 아닌 것의 다름은 무엇인가’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게 한다.

영화를 의미하는 단어 가운데, 시네마는 필름보다 한 단계, 무비보다 두어 단계 높은 사회적 위계를 품기 때문에 미술가들은 시네마를 미술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. 이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설득당할까? 다행스럽게도 <홀 시네마 전>이 각자 집에서 영화를 골라 보는(이미 실현되어 도리어 고색창연해진) 미래상을 풍자하는 것처럼, 작가들은 예술과 기술 사이에 성기게 벌어진 여러 틈을 제한된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다. 윤규홍 예술사회학